

2023년 3월 4-5일 주말예배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 1. 다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다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마태복음 11장 28-30절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 19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20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나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두 개의 성구가 성전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근거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과 28장 19-20절은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부름을 받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의 ‘우선성’(priority)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성도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goal)입니다.

‘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요,

‘가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만나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오라’와 ‘가라’의 방향에 합당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있습니다.

■ 브뤼셀로 가는 기차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화이다. 한 승무원이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표를 검사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연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큰일 났군, 큰일 났어." 이윽고 기차의 한 칸을 모두 검사하고 나서 승객들을 향해서 큰소리로 말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반대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으니 다음 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기차의 안내방송에 의하면 분명 브뤼셀로 가는 기차인데. 그렇다! 기차를 잘못 탄 것은 승객이 아닌 승무원이었던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승객 모두가 브뤼셀로 가는 기차표를 지니고 있었다면 "아니, 이거 내가 기차를 잘못 탔나?"하고 생각해 볼 일이건만 이 승무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 강한 확신을 지닌 나머지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기차였기에 망정이지 그 승무원이 운전하는 차였다면 그 승객 모두는 브뤼셀이 아닌 그 반대의 곳으로 갔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역사도 혹시 다른 방향으로 굴러 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나요?

요한복음 4장 23-24절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는 '장소', '건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 공동체에서는 '신령과 진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특정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먼저 교회 중심적 예배란,

너무나 '교인 중심적'이며 '전통 중심적' 예배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들 혹은 의식들로 인해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예배는 기존의 신자들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젠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을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중심적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얻기 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품고 꿈꿔왔던 ‘만나 예배 공동체’는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이 사람들이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와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준비와 형식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한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Worship God) 혹은 드리는 것 (Servi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무엇”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유일하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신령과 진정(개역한글)”이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둘 다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다면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별된 것을 진정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별이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보면 ‘형식적’이 되거나 ‘습관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과 형식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전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별된 것도 예배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도 예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배의 행위 가운데 ‘신령과 진정’이 들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을 ‘spirit and trut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우리의 육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짓이나 가식’이 없어야 하님이 받으십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던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경건과 거룩이라는 말로 이 부분의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거나 누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거룩함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편은 예배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에만 “감사”라는 말이 112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4절,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7편 22절,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147편 7절,

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50편 14절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시편 136편 26절,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멋지게 선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예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문제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선포하지 않을 때, 예배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감사라는 말은 찬양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의 날개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겠는지를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들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우리 뼈가 정상적인 위치를 찾고 가슴이 펴진다고 말입니다.

안톤 체홉의 단편 중에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멋진 저녁, 회계원 체르뱌코프는 공연을 관람하다 그만 ‘에취!’ 재채기를 하고 말았다.

얼른 주위를 살피니 앞에 앉은 노인이 장갑으로 벗겨진 머리를 닦고 있었다.

운수성의 브리잘로프 장군이었다.

‘이런 곤란하게 됐군,’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장군의 귀에 속삭였다.

“용서 하세요 장군, 제가 침을 튀겼군요.” 장군은 팬찮다고 했지만 그는 또 한 번 정중하게 사과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 . .” 그러자 장군은 조금 언짢은 듯 말했다. “아 됐어요. 공연 좀 봅시다!”

체르뱌코프는 머쓱해 하며 무대를 바라보았지만 기분이 찜찜했다. 휴식 시간에 그는 장군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침을 튀겼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허, 벌써 잊었다는데 아직도 그 얘기요!” 아랫입술을 떠는 장군을 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잊었다지만 눈에는 원한이 담겨 있는 걸.’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일을 얘기하자, 아내가 충고했다. “가서 사과하세요. 예절도 없는 사람으로 불테니.” 다음날 체르뱌코프는 새 관복을 차려 입고 장군의 접견실로 찾아갔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극장에서 제가 . . .” 장군은 쑥 올려다보더니 소리쳤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얼굴이 창백해진 체르뱌코프는 다급하게 말했다. “장군, 본의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장군은 읊상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지금 날 놀리자는 겁니까?” 발길을 돌린 체르뱌코프는 씩씩거렸다. ‘좋아, 더 이상 이런 오만한 인간에게 사과하지 않겠어. 찾아가는 대신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나 거듭 생각해도 무슨 얘기를 써야 할지 몰랐다.

결국 다음날 체르뱌코프는 다시 장군을 찾아갔다. “저는 어제 와서 폐를 끼친 사람입니다만… 사과를 드리려던 것이지, 놀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장군을 놀리겠습니까?” 장군은 부들부들 떨다 소리를 버럭 질렀다. “꺼져!” “뭐라고요?” 그가 두려움에 질려 묻자 장군이 다시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꺼지라니까!” 순간 체르뱌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 평 터져버렸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로 뒷걸음질쳤다. 흐느적 흐느적 걸음을 옮겨 집에 돌아온 체르뱌코프는 관복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누었다. 그리고 . . . 죽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감사를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표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함께 기뻐할 때,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뿐 아니라, 아직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시간에 여러 가지 형식을 사용하고, 다양한 것을 시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세대들을 위해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획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가 예배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콘티’라는 것을 가지고 분 단위까지 체크하면서 준비하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준비하는 예배가 얼마나 인간적이냐고 말이죠.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보고 말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준비를 쓰시는지 다르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래 전, 조선일보에 연재되던 ‘광수생각’이라는 짧은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광수 씨는 학창시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학생 이던 당시, 유행하던 미즈노 츄리닝을 입고 교회를 갔답니다.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사님과 마주치게 되었고, 옷차림에 대한 목사님의 꾸중을 듣고는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끊고 말았습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독교적인 색체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늘 비판적이었던 것 같았죠. 아마도 어렸을 적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은 당시 청소년들의 문화를 용납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미즈노 츄리닝이 어찌면 그 학생이 입을 수 있는 최상의 복장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은 표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증명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를 넘어선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진희 목사가 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렵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괜히 순종한 것일까? 결과가 좋아야 성공한 것이고 순종한 보람이 있는 것일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것일까? 순종에는 실패가 없다. 성공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36-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청춘을 하나님께 드렸던 짐 엘리엇입니다.

그의 전기 [전능자의 그늘]에 보면, 평소에 그가 하나님께 바라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p.99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p.108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 성경적 어의에서 순교자란 바로 그것이다. 순교자란 단순히 증인이란 뜻이다. 살든 죽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 초판 서문 중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분을 온전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를 하나 꼽으라면 주저함 없이 오스왈드 챔버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전기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을 보면서, 그가 살았던 삶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간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네. 자신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따라 행하는 것일세. 성령 세례는 절대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 비우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네. 즉, 손을 들어 항복을 선포하고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한 가운데서,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부름 받은 그 자리가 축복과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배자가 사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약속의 땅’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land of promise’라고 하는데,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를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위 미국에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땅’이라는 영어 ‘land of promise’를 대문자로 ‘Land of Promise’라고 쓰면, 성경의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이 과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땅인가요?

이러한 오해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진희 목사의 [가나안에 거하다]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은 land of promise가 아니라 promised land다 하나님의 주시기를 ‘약속하신 땅’이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약속의 땅’이 아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생각하듯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새로운 세계, 희망의 땅, 그래서 언제나 동경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의미의 ‘약속의 땅’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이다.

이진희 목사의 글에 보면 아주 멋진 통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애굽이든 광야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이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와 있다면, 그 광야가 가나안인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광야로 보냈노라. 내가 너에게 그 광야를 가나안으로 주었노라. 너에게는 그 광야가 너의 가나안이니라.”

선교지는 누가 봐도 광야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그 선교지가 바로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약속의 가나안’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약속을 소유하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문화와 종교에 찌든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놀란 것은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데,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바알’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바알 신을 잘 섬겨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니, 돈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권력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 지배하는 듯이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나안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처럼 될까 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살기 위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많은 죄와 유혹과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성전에서 드린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들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만나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